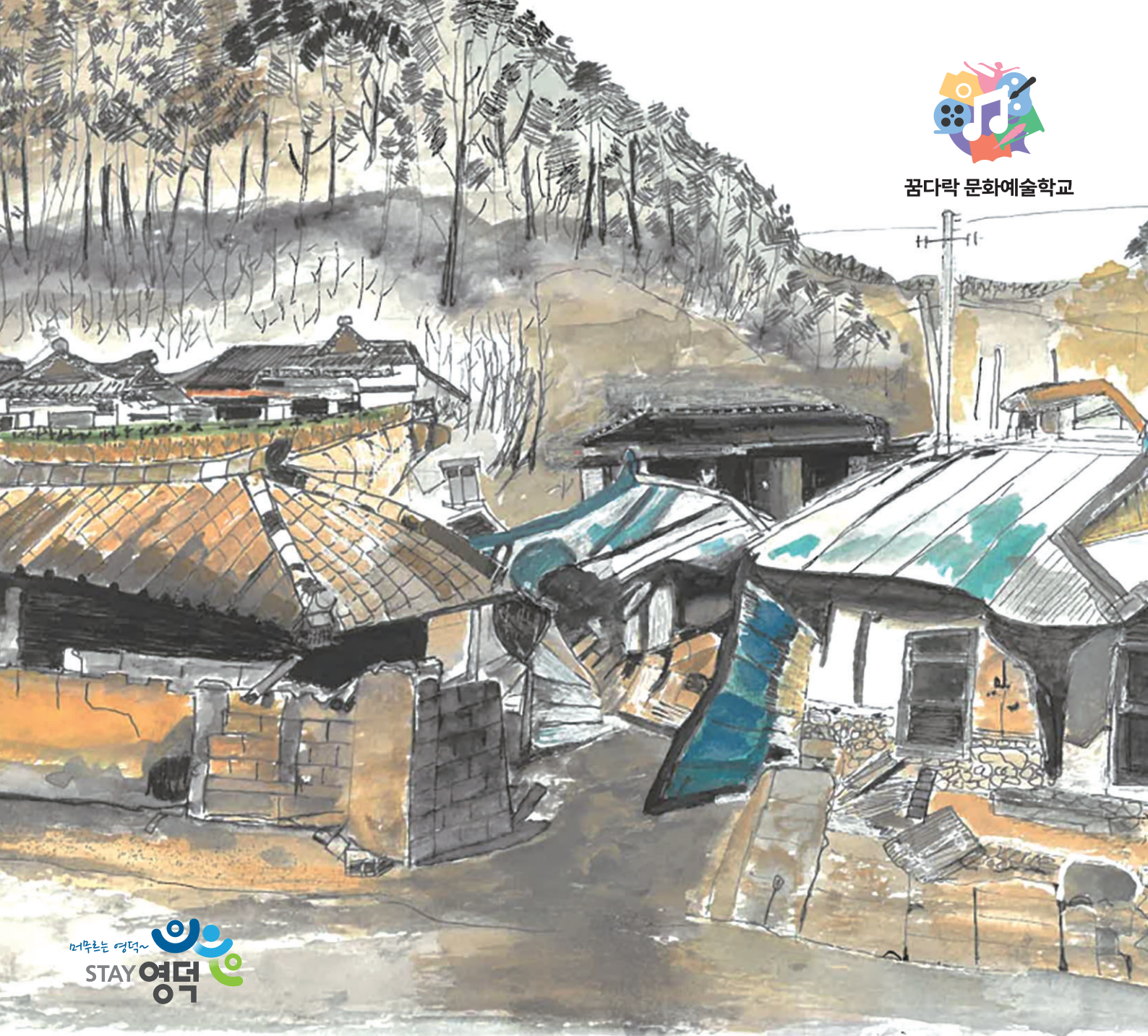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2025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생활거점형 결과자료집

다시, 이곳을 그리다

"불탄 풍경. 다시 피어난 색"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KOREA ARTS & CULTURE EDUCATION SERVICE

운영  영덕문화관광센터

프롤로그 - 불이 바다를 향해 내려오던 날

2025년 3월 22일.

의성에서 시작된 불은 처음엔 먼 이야기였다.

타지에서 일어난, 뉴스 화면 어딘가의 재난처럼 보였고, 사람들은 저녁 국을 뜨며 TV 자막으로 흘러가던 “의성 산불”이라는 글자를 잠깐 바라보고 지나쳤다.

하지만 강풍 속에 매캐한 연기와 화재의 냄새가 영덕까지 날라오기 시작했다.

그때까지도 영덕 사람들은 불이 설마 100km 가까이 되는 거리인 영덕까지 올까?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졌다.

의성의 불씨가 하루를 넘기지 않아 안동으로 향했고, 3월 23일과 24일, 바람은 청송과 영양을 돌며 영덕 방향으로 틀고 있었다.

영덕은 바다의 도시지만, 그 바다를 둘러싼 산맥이 내륙과 연결되어 있었다.

불이 산맥을 타고 내려온다는 말이 과장이 아님을 사람들은 오래지 않아 눈과 코로 확인했다.

3월 25일 아침.

아침부터 바람이 심상치가 않았다. 초속 25m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이었다. 영덕의 공기 냄새가 달라졌다. 바다에서 불어오던 비릿한 염기 대신, 흙과 재가 섞인 뜨거운 냄새가 땀에 묻어났다.

바람이 유난히 뒷산을 향해 불어왔다. 어디선가 난 불이, 여기까지 숨결을 뿜고 있었다. 지품면 황장리 일대의 주민들이 먼 능선에 퍼져 있던 회색 연기를 가장 먼저 보았다고 한다. 평소라면 나무의 결까지 선명히 바라보이던 능선이 그날따라 흐릿했다. 연기가 산골짜기 사이를 헤집고 내려오면서 능선의 윤곽이 사라졌다 나타났다가 반복했다.

점심이 가까울수록 하늘은 점점 더 검해져만 갔다. 투명하던 해안 공기는 점점 옅은 색의 안개가 깔리듯 탁해졌고, 영해면의 바닷바람에도 재가 섞여 콧등을 스치는 느낌이 거칠어졌다. 오후가 되자 지품과 영덕읍 사이의 국도 위를 달리던 차량들은 헤드라이트를 켤 수밖에 없었다.

오후 세 시, 태양이 높은데도 거리는 흐릿했고, 사람들은 변한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이건 안개가 아니네.”

“불이 왔구나.”

해가 완전히 지기도 전에, 영덕읍의 남문리 산 능선 위로 붉은 점 하나가 어렴풋이 보였다.

멀리서 보면 작은 빛 같았지만, 사람들은 직감했다. 저것은 불이었다. 능선에서 타오른 붉은 점 하나는 곧 줄기를 만들었다. 줄기는 선이 되고, 선은 검붉은 벽이 되어 산의 등골 위를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다.

영덕의 산불은, 영덕 사람들의 눈앞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밤이 오기 전, 확산 속도는 빨라졌다.

지품에서 영덕읍 방향으로 내려오는 길고 깊은 골짜기 길을 따라 불씨는 바람을 발아래 두고 뛰었고, 시간마다 불의 위치가 바뀌었다.

지형은 불을 막아내지 못했고, 산의 곡선은 불길의 길이 되었다.

영덕 군청의 긴급 대피 방송이 저녁 무렵 울려 퍼졌다.

서슬 퍼런 기계음이 마을 사이 골짜기에 반사되며, 가슴을 두드렸다.

어르신들은 현관에 놓아둔 슬리퍼를 그대로 신고 집을 나왔다.

평생 살던 마을을 눈으로 훑으며, 무언가를 남기고 떠나는 표정을 하고 있었다.

어린이들은 울지 않았다.

상황이 너무 갑작스러워 울음조차 생각나지 않은 것이다.

가족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도시 외곽 도로 근처 임시 대피장소로 향했다.

밤공기는 뜨거웠다.

해안가에 부는 밤바람조차 불이 데운 공기 위를 스쳐 내려왔다.

3월 25일 밤 9시경.

영덕의 모든 전기가 끊겼다.
통신도 끊어졌다.
산불로 인해 송전탑에 이상이 생겼는 것이다.
축산면 일대는 이미 붉게 물들었고,
해안 절벽 아래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산 위의 재와 섞여 기괴한 연흔을 만들었다.
바다는 여전히 잔잔했으나, 바다 위 하늘은 불빛에 물들어 수평선마저 붉게 흔들렸다.
불은 영덕의 산을 타고 내려오며 산림을 통째로 잡아당겼다.
지품의 산자락을 지나,
영덕읍 뒤편의 낮은 구릉까지 삼켰고,
해안 가까이까지 기세를 밀어붙였다.

이날, 영덕은 숲을 잃어가고 있었다.
집집마다 문틈으로 연기가 들어왔다.
베란다 창문을 닫아도 옷장 속 천 사이사이로 탄 냄새가 스며들었고,
아이들 머리카락에도 숯가루가 묻었다.
너무 갑작스럽게 번진 산불이어서 방송,
라디오 모든 곳에서도 영덕에 불이 번졌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았다.

길게 이어진 그 밤 동안 실제로 가장 큰 공포는,
눈앞에 불을 본 순간보다 “다가오는 소리”에 있었다.
산이 타는 소리는 폭발음과도 다르고,비명과도 달랐다.
불이 땅을 먹고, 잎을 먹고, 줄기를 먹는 소리였다.

3월 26일 새벽.

영덕 앞바다에 해가 떠올랐을 때,
해안에는 희미한 잿빛 이슬이 남아 있었다.
어두운 저녁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도로가에 녹아버린 자동차와 버스들
질게 남겨진 연기들
영덕의 랜드마크인 창포말등대도 그을리고 탔으며,
항구의 배도 타서 녹아버려 축산 항구의 어선들은 출항을 멈췄다.
이 바다는 평생을 지탱해준 터전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바다가 사람들의 마음을 지지해주지 못했다.
그럼에도 영덕 사람들은
불 아래에서 움직였다.
군청 공무원, 감시 인력, 자율방범대 같은 이름을 가진 이들은
새벽에도 산을 향해 걸어갔다.
그들은 누구보다 이 땅을 잘 아는 사람들.
길목, 비탈, 능선의 방향을 몸으로 알고 있었고,
그 지식이 진화의 마지막 손잡이가 되었다.

3월 27일 아침.

진화 작업이 종료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마을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산불이 끝났다는 사실보다, 정말 끝난 것이 맞을까 묻는 시선이 더 많았다.
해변으로 이어지는 길가에는 여전히 잿빛 안개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무너진 나무들에서는 타 들어간 송진 냄새가 배어 나왔고, 모래 위엔 검은 재가 흩날렸다.
바람이 불 때마다 그 재가 공중으로 떠올랐다 내려앉았다 했고,
사람들은 길을 걸으며 숨을 조심스럽게 들이쉬어야 했다.
주택가를 바라보면, 회색빛 먼지 속에 감춰진 일상의 흔적들이 보였다.
어떤 집들은 지붕이 남아 있었고, 어떤 집들은 검게 탔다.
문틀만 남아 바람에 흔들리는 곳도 있었다.
그 아침, 집 앞에 서서 울음을 터뜨리는 어른들이 있었다.
불길이 닿아버린 마당,
한평생 가꿨던 텃밭이 사라진 자리,
대대로 물려온 나무기둥이 무너져 내린 흔적 앞에서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먼 하늘만 바라보았다.
눈물은 견잡을 수 없이 흐르기보다, 천천히 고여 땅을 적셨다.
“살아서 다행이다”라는 말이 나왔지만, 그 말조차 위로가 되지 않는 얼굴들이 많았다.
대피소 안에서는 수십 명의 주민들이 멍한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떨어진 신발 끈 그대로, 입고 나온 슬리퍼 그대로, 밤새 아무것도 못 챙긴 채 나온 어른들은
흙 묻은 손을 바라보며 숨을 길게 들이쉬었다.
“나는 어디로 돌아가야 하나...”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말은 대답보다, 더 깊은 침묵을 불러왔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대피소 가장자리에서는 아이들이 웃고 있었다.
산불의 무게를 몰랐기 때문이다.
비닐봉지를 접어 만든 공을 차고,
간식으로 받은 과자를 서로 나누며 대피소를 놀이터처럼 뛰어다녔다.
아이들의 웃음은 어른들의 등을 더욱 굽게 만들었다.
그들은 그 웃음을 바라보며 두려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이 아이들이 살아 있었으니 됐다...”

3월 28일.

사람들은 낮에 마을로 돌아가 남은 것을 확인하러 갔다.
길가에는 타버린 전신주와 전선이 내려앉아 있었고,
전기선 사이로 비구름처럼 희뿌연 연기만 흘렀다.
어떤 자동차들은 바퀴만 남았다.
버스는 형태만 남은 채,
철제 골격이 드러난 상태로 서 있었다.
산을 둘러보니 나무 한 그루가 허공으로 솟은 채,
검은 막대를 꽂아 놓은 것 같았다.
있는 모두 사라지고, 즐기만이 남은 채, 까맣게 말라버린 산이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 폐허 속에서도, 사람들은 작은 변화를 발견했다.
마을 어귀 돌담 아래,
불이 닿지 못한 풀잎 두세 개가 남아 있었다.
검은 땅 위에서 연둣빛 줄기가 조심스레 바람을 타고 흔들렸다.
그 모습은 많은 주민들에게 벅찬 감정을 보게 했다.
어떤 이는 가만히 풀잎을 바라보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살아나겠지.”
“우리는 여기서 다시 시작해야지.”
그 말들은 확신이 아니라,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기 위한 마음이었다.

4월 초가 되자

불의 흔적 사이로 차들이 다니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하루 한 걸음씩 일상으로 돌아오려 했다.
군청 청사 앞엔 돛갯다는 지역 주민들이 줄을 섰고,
식당 주방에서는 봉사 음식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다.
가게들은 재를 털어내기 위해 문을 열었고,
학교 운동장은 잿빛 속에서도 아이들이 뛰어놀았다.

왜 우리는 다시, 이곳을 그려야 했는가

왜 우리는 다시, 이곳을 그려야 했는가.

2025년의 영덕은, 산불을 겪은 도시였다.

숲이 불에 타고, 땅이 드러누웠고, 사람들의 마음 한가운데에도 그을린 자국이 남았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이 프로그램은 시작되었다.

‘다시, 이곳을 그리다’는 단순히 그림을 배우는 수업이나 미술 취미 활동이 아니었다.

이 프로그램은 산불 이후의 영덕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움직임이었다.

숲이 타버린 자리 위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온 마을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 시선이 모여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기록집이다.

이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기억을 잃지 않기 위한 그리기”였다.

잔해 위에 새로 자라는 풀잎을 본 것처럼, 그림을 통해 상처 위에 새로운 색을 엮는 과정이었다.

우리는 영덕의 네 지점을 따라 걸었다.

지품면, 영덕읍, 축산면, 블루로드, 해맞이공원까지—

산불이 남긴 흔적과, 살아 있는 풍경을 함께 기록했다.

참여자들은 각 지역에서 풍경을 직접 보고, 냄새를 맡고, 흙을 밟고,

공기의 온도까지 느끼며 그 경험을 스케치북 위에 옮겼다.

무엇보다 이 프로그램이 특별했던 이유는, 영덕 사람들이 직접 영덕을 그렸다는 데 있었다.

외부 화가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살아온 주민들이 자신의 마을과 풍경을 그린 것이다.

그림 한 장에는 거기 살았던 시간, 불을 보던 눈빛, 무너진 산을 바라보던 떨림,

다시 자라는 풀을 보며 느낀 숨결이 담겨 있었다.

예술은 사건을 치유할 수 없다.

하지만 예술은 사건을 기억하게 만든다.

그리고 기억은 사람을 다시 걷게 만든다.

‘다시, 이곳을 그리다’는 불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영덕의 시간들을 그림이라는 언어로 남기기 위한 여정이다.

그림을 통해, 우리는 질문했다.

불은 무엇을 앗아갔는가.

무엇이 남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 프로그램은 그 질문들에 대한 한 장 한 장의 대답이다.

영덕 산불 화재 현장



영덕 산불 화재 현장



영덕 산불 화재 현장



영덕 산불 이동 과정



안동시

영양군

영덕군

의성군

청송군

3/22 산불발생

3/24 서산영덕고속도로 접근

3/25 25m/s의 강풍으로 하루만에 청송 영덕 초토화

지품-불이 대지를 지나가고, 사람이 남았다



강부송_우리집

이십 년 가까운 세월동안 남편과 내가 산을 가꾸고 함께 벽돌 하나하나를 남의 손 빌리지 않고 쌓아 지은 집.

그 집 앞을 지켜주던 백년 묵은 소나무 숲 희망을 이야기 하던 곳.

“우리는 여기서 살았고, 사랑했고, 행복했다”



강부송_여전히 우리집

불 탄 집 앞에서 한 순간에 사라진 삶의 자리.
 검은 나무와 무너진 벽 속에 남편의 손길이 아직 남아있다.
 불 타버린 벽돌과 마당, 백년 넘은 소나무 숲 남겨진 트랙터 하나.
 그래도 이 곳은 여전히 우리의 집이다.



권정혜_신안리 당산나무

지품면 도계리에 있던 나무가 태풍에 떠 내려와 신안리에 정착하였다는 전설이 있는 300년 이상 된 나무다.
 신안리 당산나무로 보호수로 지정되어있다.
 3월 화재로 생명을 다 한 듯 보였던 나무는 새순을 올렸지만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을 나며 말라버렸다.
 사람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낸 당산나무로 살아온 주름과 나이테마다 녹아든 기도로 다가올 봄 다시 새순을 올리는 기적을 볼 수 있었으면....



신안리 당산나무

신안리의 당산나무는, 산불 이후 뚜렷한 피해 흔적을 남긴 채 서 있다. 수세가 오래된 보호수였으나, 불길이 주변을 통과하며 줄기 외피가 검게 그을리고 일부 가지는 고사한 흔적을 보인다. 현장에서 확인된 주민 증언에 따르면, 산불 이후 한동안 새순이 돋았으나 여름 가뭄이 겹치며 생육이 약해진 상태다. 등치의 외피는 상당 부분 탄자국이 남아 있고, 뿌리 근처 흙은 열을 견디지 못한 흔적으로 갈라져 있다. 당산나무 주변 벤치·정자 등 시설물은 비교적 유지되었지만, 바닥과 구조물 일부엔 그을음이 남아 당시 불길이 마을 경계까지 접근했음을 보여준다. 보호수 또한 화재 피해 대상이 되었음을 기록하는 사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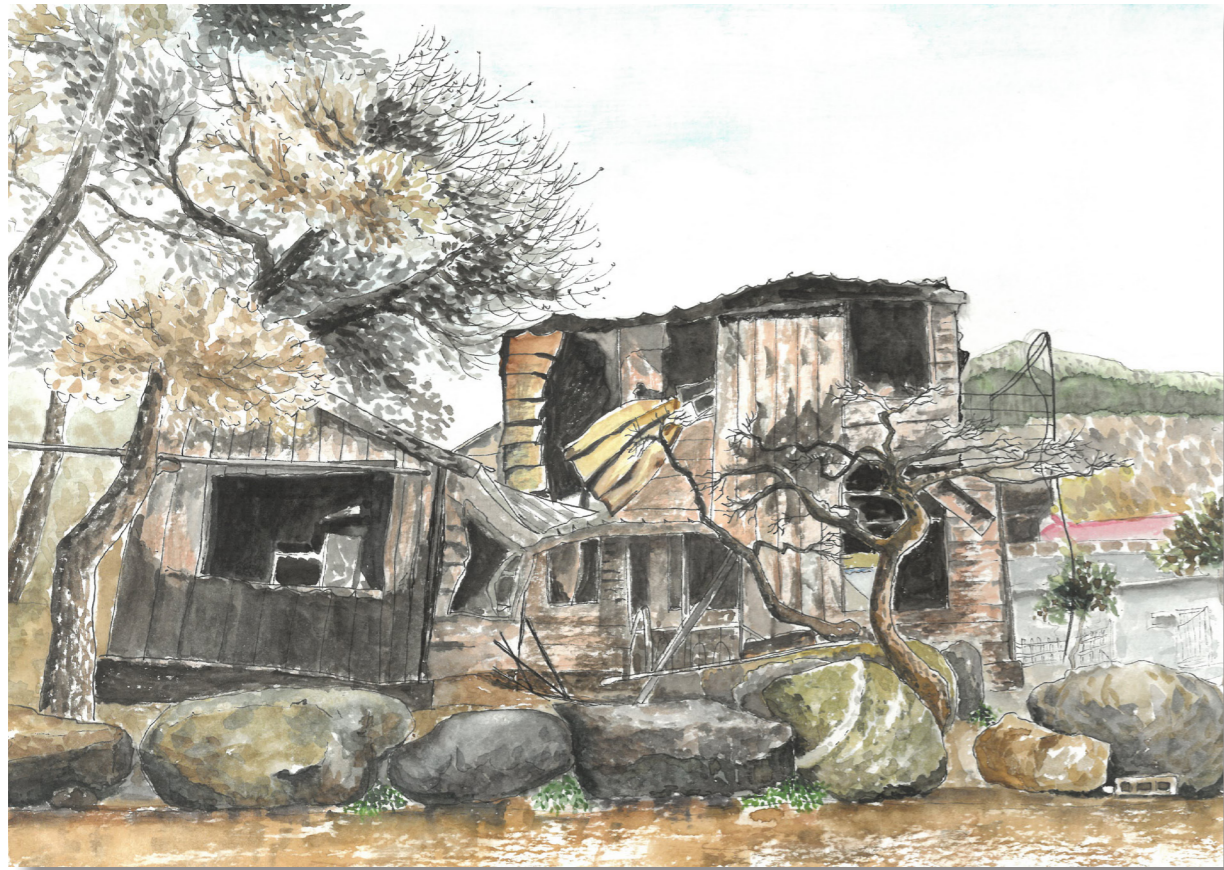


권혜정_지품면 똑딱이네 집_화재전



권혜정_지품면 똑딱이네 집_화재후

산 너머 똑딱이네 공방을 운영하면서 공방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에게 똑딱이네 열차를 태워주었습니다. 이제는 한 동안 그 모습을 볼 수 없어 무척이나 아쉽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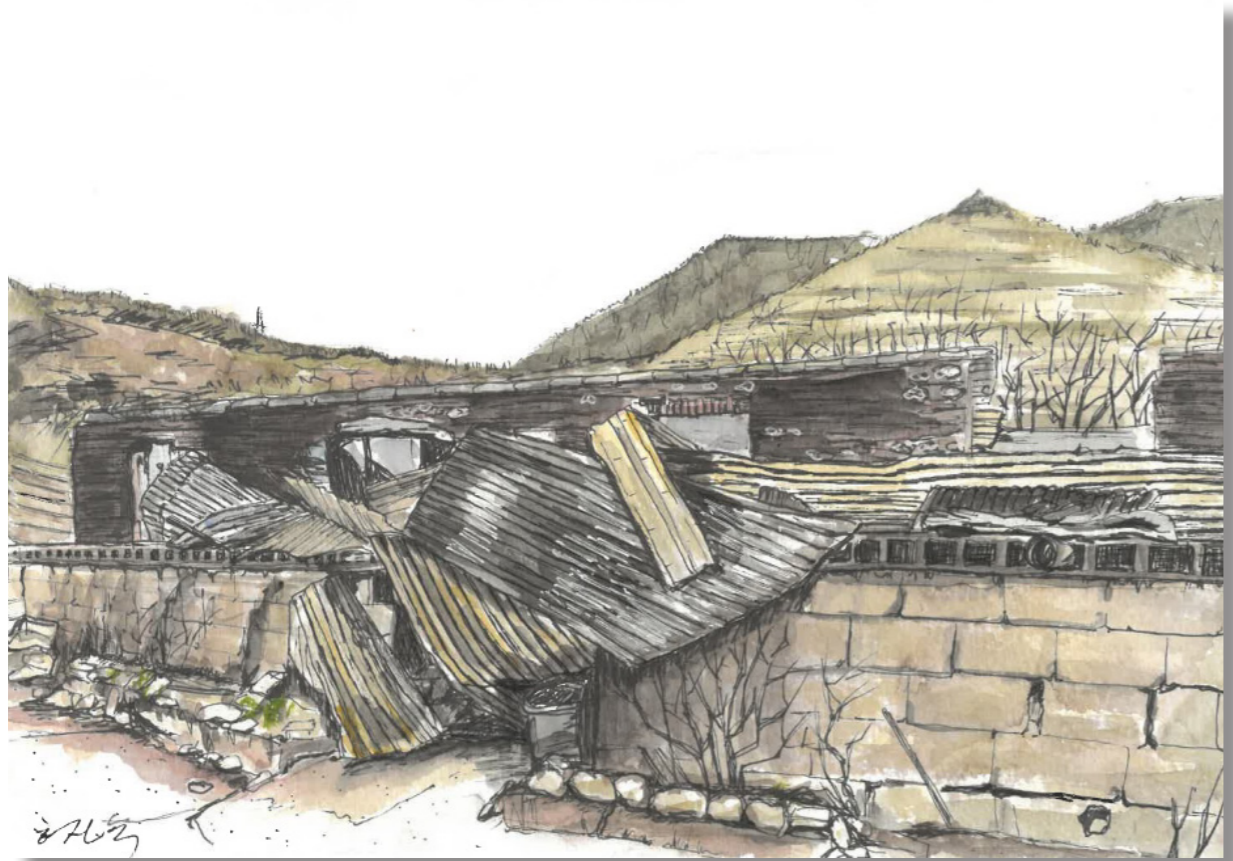
권정혜_차씨 집성촌

주택 뒤에 아름다운 소나무가 많았던 송당 심터가 있었다.
 소나무들에 불꽃이 날아오며 집도 함께 화마에 휩싸였다.
 다연석과 소나무로 정원을 꾸미고 리모델링을 한 후 주택이 소실되어 상실감이 더욱 컸을
 지품면 울전리 농부의 집이다.



임계화_신안리 가스집

트럭 위 가득한 가스통.
 마을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 졸였을까.



허진숙_지품면 울전리

영덕에는 예전에 지어진 집이 많아.
 슬레이트 지붕의 건물이 참 많다.
 이런 지붕이 상황을 악화시킬줄 누가 알았을까.
 휘어지고 녹아버린 지붕에 무너져버린 일상.



임계화_울전리 과수원

모든 것이 죽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타버린 집 뒤로 다시 희망이 보입니다.
 나무마다 하이얀 배꽃이 피어나길.



오연미_지품면 복곡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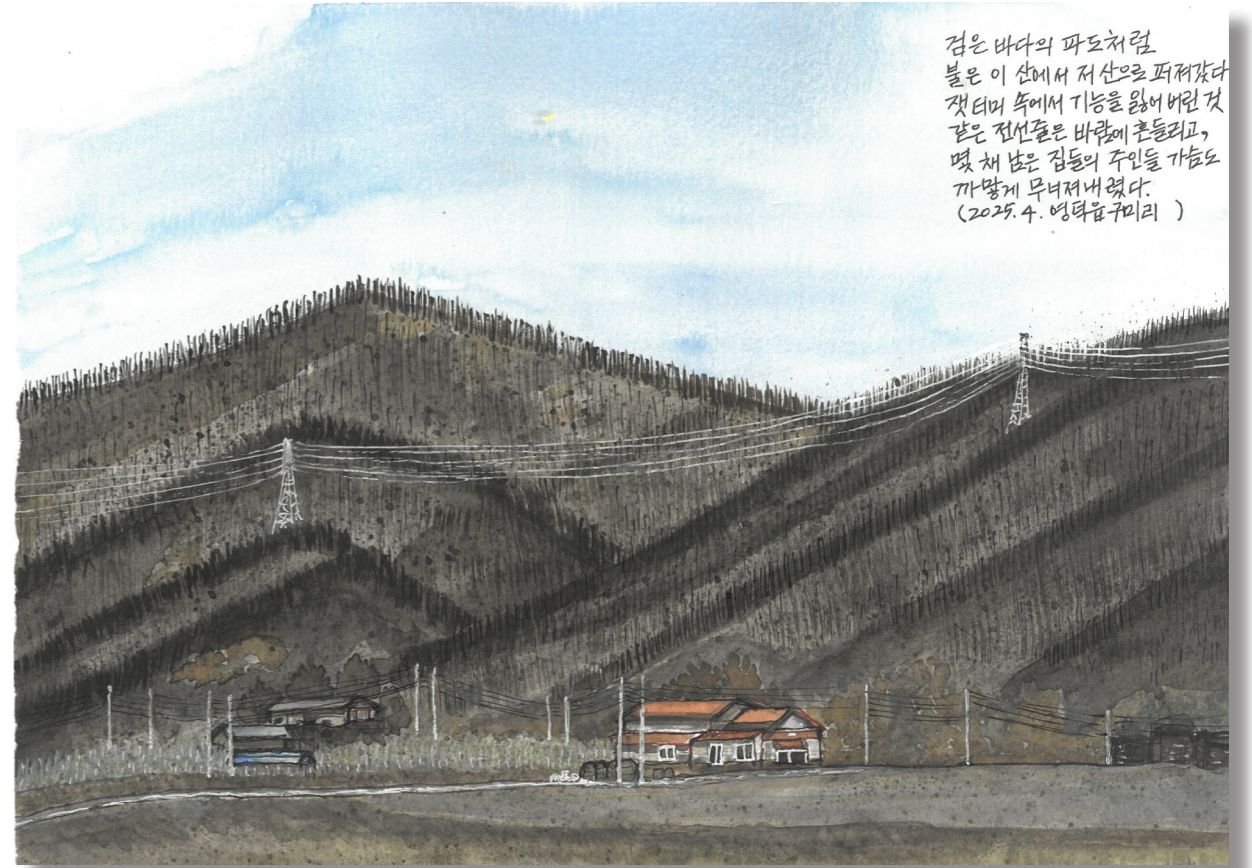
산불이 지나간 무채색 속에서도 흐드러지게 피어난 복사꽃 그래도 시간은 흐른다.

2025년 봄,

복곡리 마을 안쪽에 자리한 이 주택은 산불 당시 가장 먼저 불길이 닿은 줄에 속했다. 집의 외벽은 뜨거운 열에 검게 갈라졌고, 창틀과 지붕의 구조가 일부 무너져 내렸다. 집 앞 표지판과 골목길은 불길의 방향을 증언하듯 재와 검은 그을음을 그대로 남기고 있었다. 화재가 지나고, 같은 자리에서 복사꽃이 가장 먼저 피었다. 검은 외벽과 분홍 꽃잎은 계절의 시간차를 기록처럼 보여준다. 집은 아직 복구되지 않았고, 꽃은 그대로 피고 졌다. 이 장면은 복곡리에서 산불이 남긴 시간의 속도를 보여준다. 불은 하루 만에 마을을 바꾸었지만, 사람들이 다시 이 길을 밟는 데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



영덕읍 - 영덕의 중심을 지나가다



검은 바다의 파도처럼
불은 이 산에서 저 산으로 퍼져갔다
잣더미 속에서 기능을 잃어버린 것
같은 전선줄은 바람에 흔들리고,
몇 채 남은 집들의 주인들 가슴도
까맣게 무너져내렸다.
(2025. 4. 영덕읍 구미리)

오연미_구미리

검은 바다의 파도처럼 불은 이 산에서 저 산으로 퍼져나갔다.
잣더미 속에서 기능을 잃어버린 것 같은 전선줄은 바람에 흔들리고 몇 채 남은 집들의 주인들
가슴도 까맣게 무너져내렸다.

산불이 통과한 흔적이 능선을 따라 선명히 남아 있다.
수목 대부분이 잎을 잃고 줄기만 남아 있으며, 비탈면 전체가 불에 그을린 채 검게 변해 있다.
현장을 지켜본 주민들은 산의 모습을 보며 말했다.
“불길이 어디서 내려왔는지 능선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능선 아래의 농가와 창고는 화염이 직접 닿지 않았지만,
바람을 타고 내려온 열기와 재에 노출되면서 외벽과 주변 시설에 검은 흔적이 남았다.
이 지역의 지형과 피해 양상은, 산불이 내륙 산림을 따라 이동해 영덕을 관통했음을 보여준다.



이명자_구미리 저온창고

검게 그을린 벽면에서 화재의 흔적이 그대로 드러난다.
 파란 하늘과 대비되어 잃어버린 공간의 상처가 더 선명하게 보인다.
 한때는 일상을 지탱하던 장소가 순식간에 무너져버린 현실이 뼈아프게 느껴진다.



오연미_화수리 컨테이너

다 녹아버린 컨테이너 검게물든 지게차 여기서 일하던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진...



백현숙_화천리 창고

불에 타 일그러진 이 건물을 마주하니, 한때의 온기와 사람들의 노력이 검게 남아 있는 듯했다. 붕괴된 구조를 따라 선을 긋는 동안, 잃어버린 일상과 그 자리에 남은 허망함이 손끝까지 스며들었다.

그래도 이 흔적을 그려 남기는 것이, 사라진 시간을 기억하는 작은 애도라고 느껴졌다.



강부송_삼계리 무너진 돌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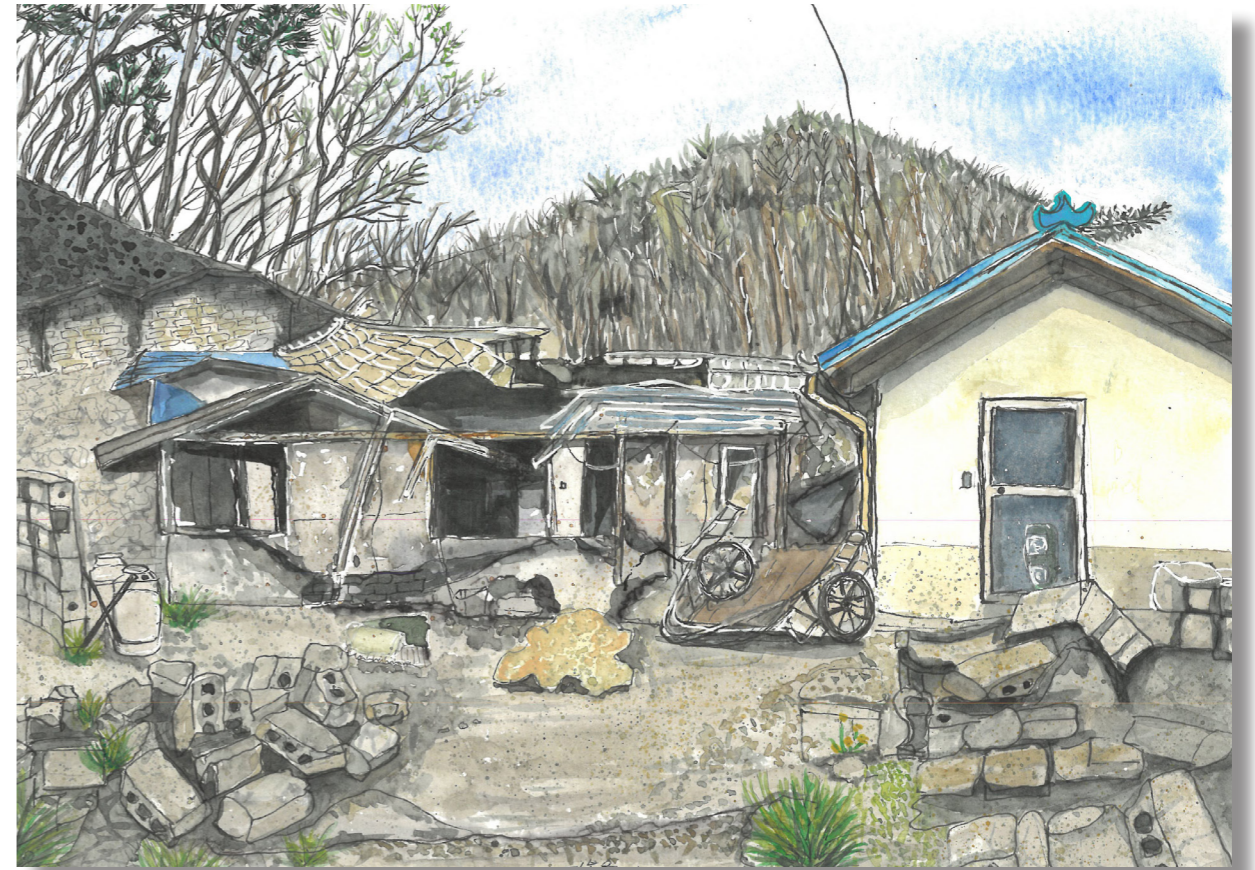
집 주인분의 손 때가 묻은 오래된 손수레 차만 남겨져 있는 낮은 돌담의 오래된 집 차가운 공기만 남은 집.



벗꽃지고 이파리 떨어질 때
 사람들의 쉼터가
 되어주던 53호실도
 연기와 함께 사라져버렸다
 여기를 다녀간 사람들의
 추억 속에서는
 언제나 살아있길 ~
 (2025.4. 매정리)
 2025.12. 호하동길
 연미

오연미_매정리

벗꽃지고 이파리 떨어질 때 사람들의 쉼터가 되어주던 53호실도 연기와 함께 사라져버렸다.
 여기를 다녀간 사람들의 추억 속에서는 언제나 살아있길.



조수연_매정마을

그림을 그리기 위해 가본 곳인 매정.
 지금은 임시주택이 줄지어 주황빛을 내고 있다.
 이런 모습이었는지 상상이나 했을까...



최정아_매정교회

영덕 산불에 매정교회까지 불타버렸다는 소식에 말할 수 없는 슬픔, 대대로 지켜온 터전을 잃은 분들의 고통 오랜시간 함께 해 온 교회까지 잿더미로 변해버린 참담함 앞에서, 어떤 위로의 말을 드려야할지 망설여집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깊은 절망감에 휩싸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추억이 한순간에 사라진 허망함,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한 현실 앞에서, 숨쉬는 것 도차 버거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디 기억해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픔을 함께 나누고 슬퍼하며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습니다. 무너진 교회는 다시 세울 수 있고, 잃어버린 것은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힘든 시기였지만, 서로에게 의지하며 굳건하게 버텨주시고,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여러분의 아픔을 함께하며, 작은 힘이나마 보탬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부디 용기를 내시고, 희망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축산-불길이 내려앉은 산마루



박은옥_사랑이여 빛일레라

산불 현장 세 번째 작업이다.

형체만 남아 한쪽으로 기울어진 트럭의 형상.

제3자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그저 검게 타고 바퀴가 내려앉아 기울어진 트럭의 모습.

화재 현장의 많은 사진을 보다 보니 안타깝고, 허망하고 함께 분노했었는데 이또한 한 부분이라는 무덤덤함마저 들게 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 모습을 점으로 이어 조금씩 그려내면서 든 생각은, 충분히 피할 수가 없었을까?, 왜 이곳에 머물러 있었을까? 하는 의아함도 잠시, 어떤 분께서 집으로 돌아가다가 그렇게 된 것이라고. 그랬구나. 충분히 피할 수가 있었음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가야 했던 그곳에는, 내 사랑이고, 내 삶의 희망인 아내가,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음에 달려 가야 했을 것이다. 그래, 우리는 살아있음에 감사해야한다는 표피적인 위로나 말은 삼가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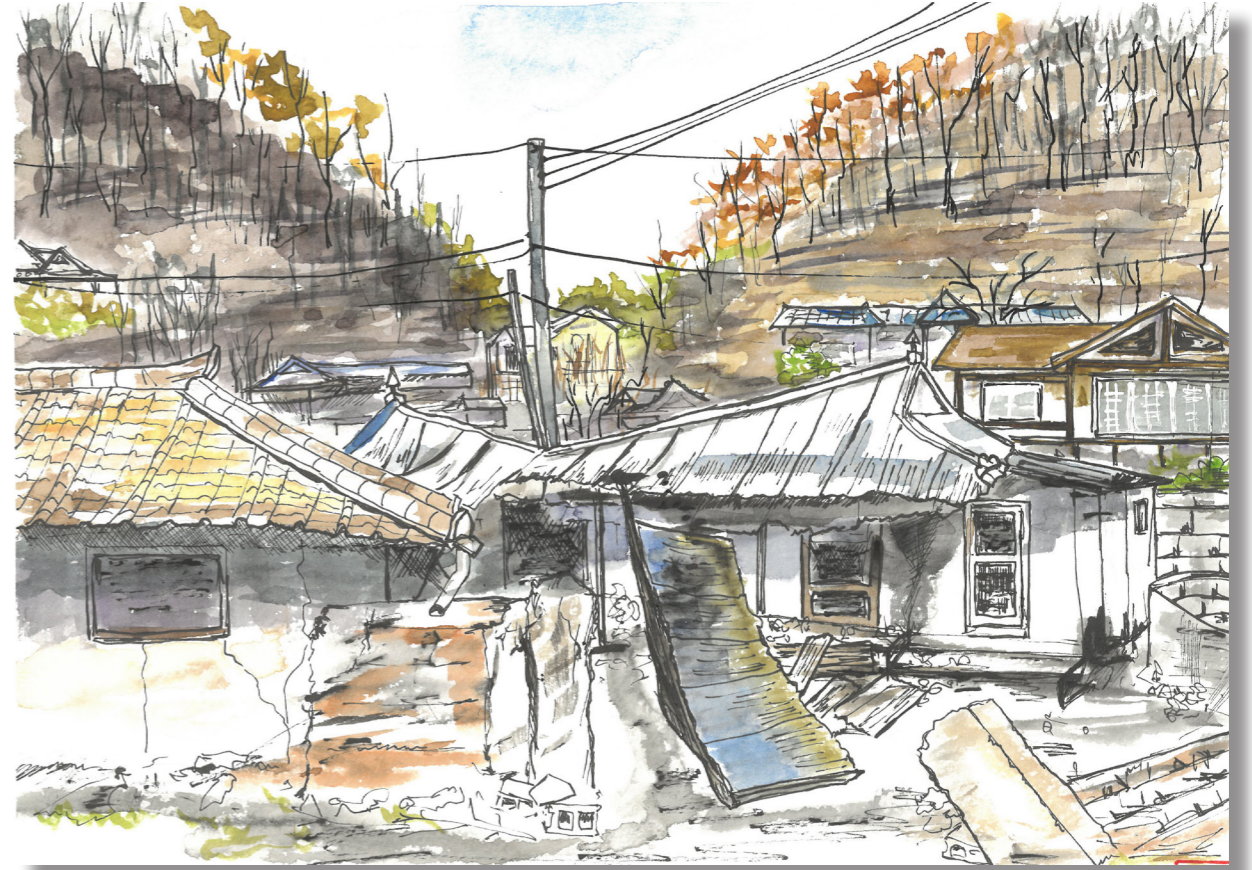
어쩌면 그 트럭은 그들의 삶의 유일한 터전이었을지도 모르기에 암울하게 피어나는 그들의 깊고 깊은 한숨을 우리는 그저 고개 끄덕임 정도로 느낄 뿐이다.

하지만, 지금의 검게 타서 멈추고, 머물러 퍼져 있는 모습이 아니라 매일 매일을 힘차게 달리고 달렸던, 그 힘찬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날아 오르기를 기대하며 마음으로 응원의 박수를 크게 보내고 싶다. 그들의 희망이, 꿈이, 사랑으로, 아름다움으로 다시 한번 힘차게 날아오르기를. Good Lu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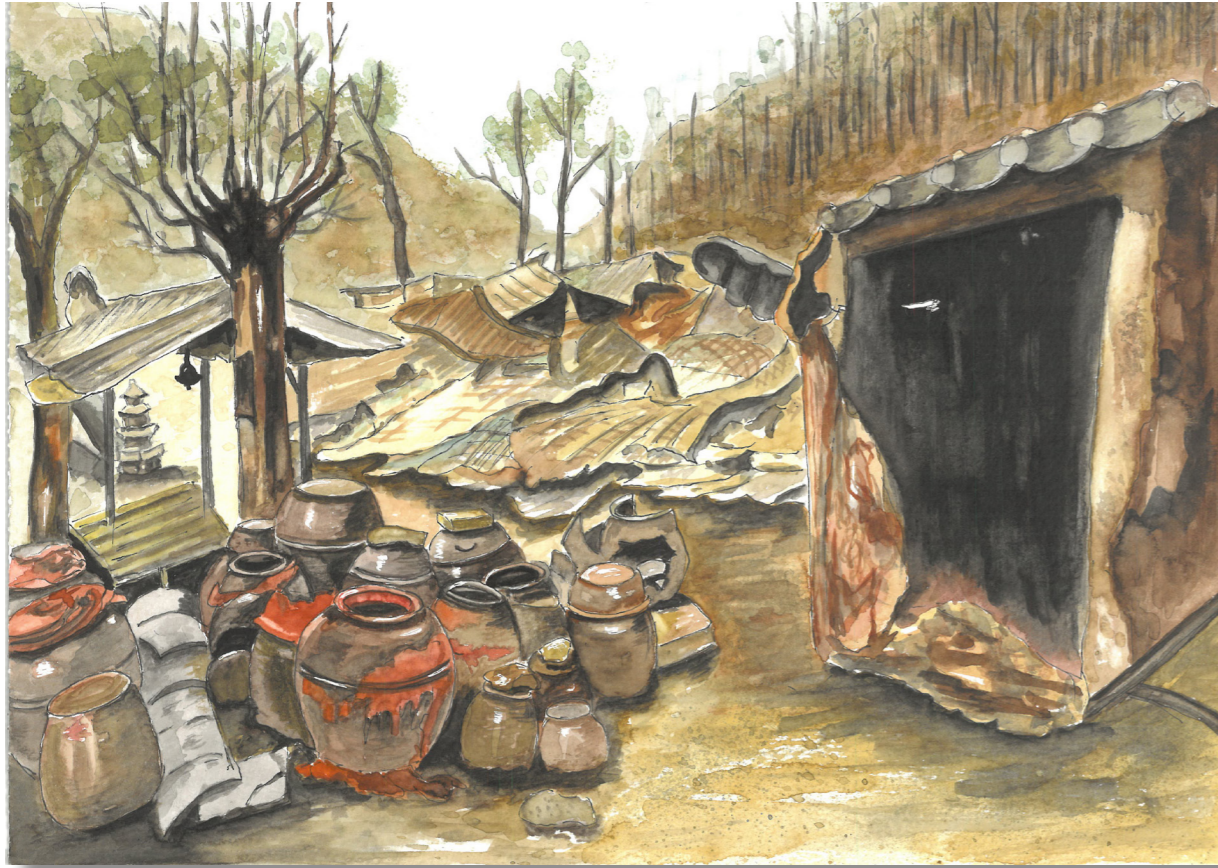
이명자_축산리 어느마을

산불이 마을을 깊게 할린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
 무너진 지붕과 그을린 벽들 사이로 한때의 일상이 고스란히 멈춰 서 있는 듯하다.
 그래도 이곳에서 다시 살아가려는 마음과 회복의 의지가 조용히 느껴진다.



김명희_축산리

익숙한 냄새, 웃음이 깃든 벽.
 모두 재가 되어 바람에 흩어졌다.
 불길을 꺼졌지만 내 마음속엔 여전히 연기가 남아 숨쉬는 것조차 힘들다.
 하지만 한 줄기의 빛은 어둠 속에서 더 선명하게 비춰줄거라는 희망에 오늘 하루를 버텨낼 것이다.



백현숙_남겨진 장독대

불길이 스쳐간 자리에서 깨지지 않은 항아리를 보자, 잃어버린 것과 남겨진 것이 한눈에 겹쳐 보였다. 재와 흙이 뒤섞인 풍경을 그리는 동안, 이곳에 살던 사람들의 시간까지 함께 그려지는 듯했다. 사라진 자리의 기억이 조금은 남아줄 거라 믿으며 그림을 그려본다.



강부송_경정3리 바닷가마을

바닷가 마을에 속절없이 봄이 오건만
장독대만 덩그러니 남은 집터에선
하늘 가신 부모님 그리는 낙서를 남기며
봄을 기다리는 딸들이 있었다.
화단의 초록색 돌덩이엔
“어머니의 다음 생은 꽃길만 걸으세요” 란 글씨가 쓰여있다.



조수연_블루로드 경정가는길

블루로드를 따라 경정으로 넘어가다보면 나오는 집
 해변을 보며 여행을 즐기기 위해 왔을터인데 화마로 한 순간 사라진 삶



권혜정_차유마을

산불로 다 타고 무너진 건물 뒤.
 깨끗한 신축·개축 현수막이 참 아이러니한 느낌을 준다.



김현주(강사)_경정항

이 그림이 담고 있는 곳은, 2025년 산불 당시 영덕 축산면 경정 일대다.
 불은 내륙에서 남하해 산을 타고 내려오며 이 지역의 숲을 크게 태웠다.
 해안선 바로 뒤에 있는 산은 대부분의 수목이 불에 그을려 잎이 모두 떨어졌고, 나무줄기만 검은 남았다.
 평소에는 울창한 숲으로 보였던 능선이 불길 이후 그대로 노출된 지형처럼 드러나 있다.
 그 아래 마을과 해안 시설은 비교적 보존되었다.
 주택과 상가 대부분은 직접적인 화염 피해를 면했으나, 굴뚝·외벽·도로 주변에는 재가 쌓였고
 비상방송 스피커와 전신주 주변 배선은 불길이 지나간 흔적과 함께 어지럽게 남았다.
 이 장소는, ‘바닷가 마을이지만 산불의 직접 피해권이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산불은 산쪽 숲을 크게 태웠고, 마을 앞바다는 그대로 남아 검은 산과 푸른 바다가 동시에
 존재하는 특이한 풍경을 만들었다.
 이 그림은, 불이 어디까지 왔고 무엇이 남았는지를 기록한다.
 산은 잿빛으로 변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 산을 매일 올라다보며 불길이 지나간 경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블루로드-검은 산 아래의 푸른 길



최정아_대탄리 벽화마을

산뜻빛 비극 앞에서 폐허가 된 꿈의 보금자리, 고요한 시골의 정적을 깨트린 폐허는 수줍은 미소를 간직했던 돌고래와 목련의 벽화가 드리웠던 2층 주택의 덧없는 잔해입니다.

벽돌과 담장만이 앙상하게 남은 채 내부의 모든 흔적은 마치 그림자처럼 사라졌습니다.

옆집 지붕 위 낡은 sky안테나가 시간의 조각처럼 덩그러니 놓여 덧없는 현실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한 때 등지였던 공간, 사랑하는 이들의 웃음소리가 메아리치던 안식처는 이제 잿더미 속에 갇힌 덧없는 기억으로 변모했습니다.

폐허는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을 삼키고, 바람은 부서진 틈새를 맴돌며 잃어버린 기단의 파편들을 흩날립니다.

그러나 잿더미 속에서도 그곳에 깃들었던 사랑과 기억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흩날리는 바람 속에 묻힌 소중한 순간들을 기억하며, 새로운 희망을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연미_대탄리 벽화집

아름다운 벽화 뒤 검게 익은 집 그리면서도 상반된 모습에 마음이 심층생생



권혜정_오보리 작은 슈퍼

첫째 아이 유치원 다닐 때,
우연히 근처에 물놀이를 하러 갔다가 만난 친구의 조부모님댁 작은 슈퍼.
산불이 영덕을 덮치고 난 뒤 우연히 들린 오보리, 이 집만 불 탄 모습을 보고 참 마음이
참담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도 저 문을 열고 들어가 아이스크림 하나씩 들고 나온 아이들이 생각납니다.



김명희_블루로드 오보리

한 순간의 불이 오랜 세월의 온기를 삼켜버렸다.
남은 건 타다 남은 잿더미 위 그 자리를 지키는 기억 뿐 언젠가는 이 잿더미 사이에서도 작은 새싹 하나가 자라날 거라는 희미한 희망에 숨을 고른다.



임계화_노물리 마을 앞

맛난 회를 먹으러 자주 찾았던 노물리
정들었던 노포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가슴이 멍멍합니다.
거칠지만 따뜻했건 주인은 어디로 갔을까요?



박은옥_울림1

영덕산불 화재 현장을 그림으로 그려내는 작업에 대해 설명을 들을 때만 하여도 그저 안타까운 마음과 허무한 마음이 일면서 그들과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일관하였는데 막상 그 현장을 사진으로 접하면서, 또한 직접 그리면서 드는 생각은 결코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하였다는 일종의 죄책감마저 들었었다.

정말이지.

제 3자인 우리네가 이럴진대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참담하고 허망하였을까?

아니, 형용키 힘든, 정말 표현하기 힘든 황망한 절망감도 들었을테고 그로인해 마음은 얼마나 허물어졌을까 하는....

한을 한을 그려내면서, 부분 부분들을 채색해 내면서 나도 모르게 생각의 나래는 불타기 이전의 그곳에 생했던 꿈들을 찾아내려는 듯 달려가고 있었다.

길가에 고철되어 버려져 나뒹구는, 형체도 모르게 얼기 설기 얽히고 쌓여 사나운 모습을 하고 있는 물체들을 보면서 왠지 모르게 우리의 노년의 모습도 함께 겹쳐져 서글퍼졌다면 너무 앞서간 것일까.

냉장고, 장식용 탁자, 자전거 바퀴,, 장바구니, 기타 등등.

그래. 그랬을 것이다. 저 냉장고 안에는 가족들이 먹을 음식 만들 재료와 만든 음식들이 소담스럽게 들어 있었을테고, 식탁에서 온 가족이 모여 앉아 기쁨으로 식사들을 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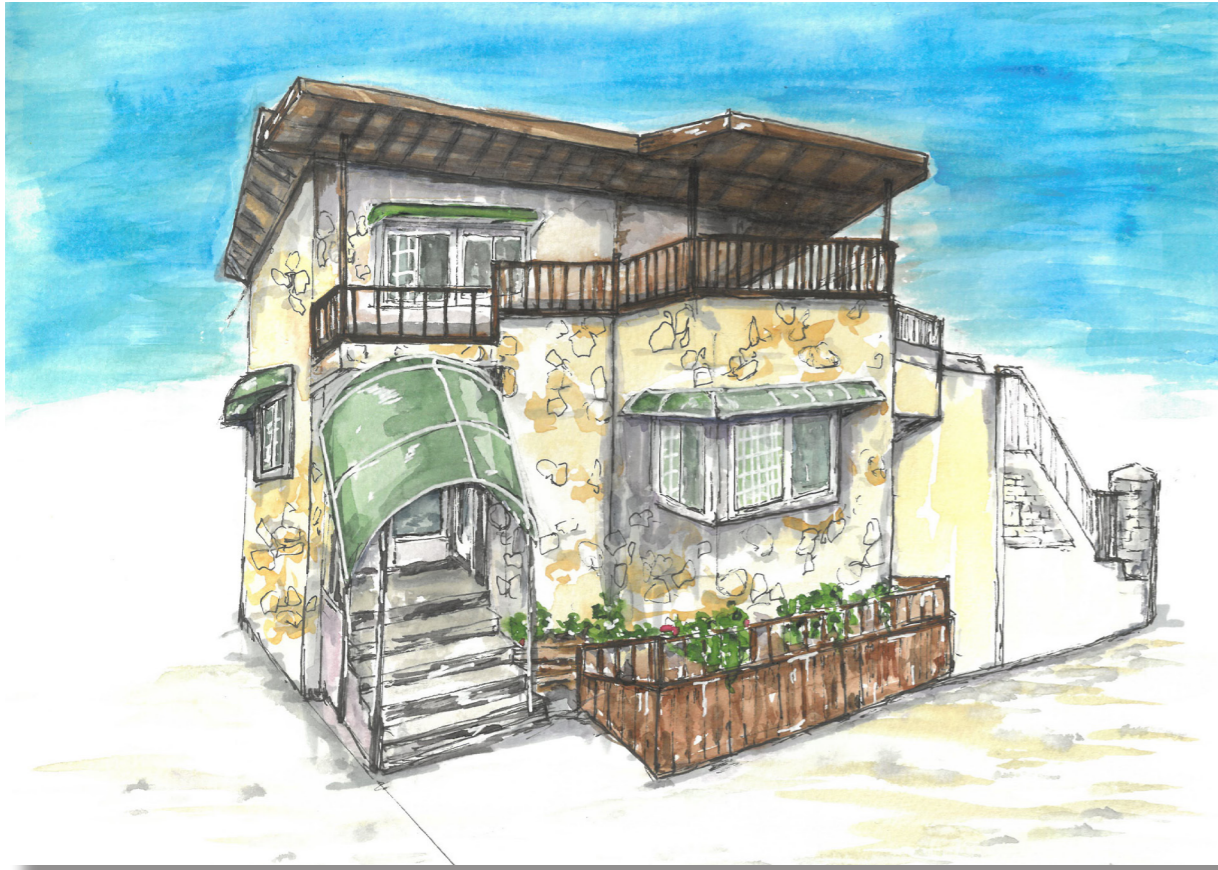
오늘을 잘 살아 내었고, 내일을 또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라면서 종종 걸음 걸었던 어느 주부의 사랑이 담기었던 냉장고. 그래, 처음 장만했을 때에는 얼마나 쓸고 닦았을꼬....

또한, 어느 구석 한켠을 차지하고 자기 몫의 한 부분을 충실히 장식했던 아담한 탁자, 그 위에는 무엇이 자리하고 있었을까 하는 궁금이 꼬리를 물고....

자전거.

비록, 지금은 일그러져 바퀴만 남아 구겨져 나뒹구는 저 자전거에서 내 아버지의 모습이 따라다니고, 불에 타서 시커멓게 타다만 장바구니에는 가족들을 향한 사랑을 싣고 잘잘 끌며 시장가는 아낙들의 마음이 들여다 보이고.....

일일이 나열하기에도 바쁜 삶의 치열함과도 같은 어둠이 무거움으로 함께 따라 다니고, 이 통탄의 아픔 앞에 내가 과연 이 이야기들을 감히 그려낼 수가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어떤 부끄러움들이 자꾸만 손길을 멈추게도 하였지만, 어차피 해야만 되는 일이라면 자신은 없지만 조금이라도 함께 마음을 모으고 동참의 의미로 열심히, 정성드려 작업에 충실히 임해야겠다는 거룩한 부담마저 일면서 마음을 다짐하는 계기도 되었음에 비록, 고철 되어 폐물처럼 되어버린 물체들이 또 다른 모습으로 재생되어 소중한게 태어나기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달고자 한다.



김명희_노물집 화재전



허진숙_노물리 가정집

깨져버린 유리창, 녹아버린 지붕과 테라스, 무너진 건 집이 아닌 그들의 삶이지 않을까

2025년 영덕 산불은 내륙 산지에서 시작해 바람을 타고 동쪽으로 확산되며, 노물리 해안선까지 도달했다. 산불 진행 방향은 능선을 따라 내려오는 형태였고, 산림 화재 흔적은 노물리 마을 뒤편 숲에서부터 항구 인근까지 연속적으로 확인된다.

노물리의 해안 주택 일부는 직접적인 열 피해를 입었다. 외벽과 창틀 주변에 화열 흔적이 남아 있고, 지붕 재질 일부가 변형된 주택도 관찰된다. 석축 담장과 계단, 난간과 같은 외부 구조물은 겹겹이 그을린 범위가 일정하게 이어진다.

산불은 바닷가 쪽 시설에도 영향을 미쳤다. 항구 주변에 주차되었던 차량은 외장 일부가 열에 변색되었고, 선착장에 있던 소형 어선 여러 척은 선체 표면에 녹 번짐과 패널 들뜸 현상이 남았다. 철제 계류 기둥, 난간, 신호판 역시 화열에 의한 변색이 동일 구역에서 확인된다.

노물리에서 기록되는 특징은 산에서 시작된 화염이 바다까지 관통한 지형적 흔적이다. 숲이 그을린 경사면, 주택 외벽의 열반응, 항구 금속 부식, 배 외판 변형까지 같은 방향성을 따라 나열된다. 이 일련의 흔적은 2025년 산불 당시 노물리가 내륙과 해안 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대표 해안 마을임을 보여준다.



오연미_노물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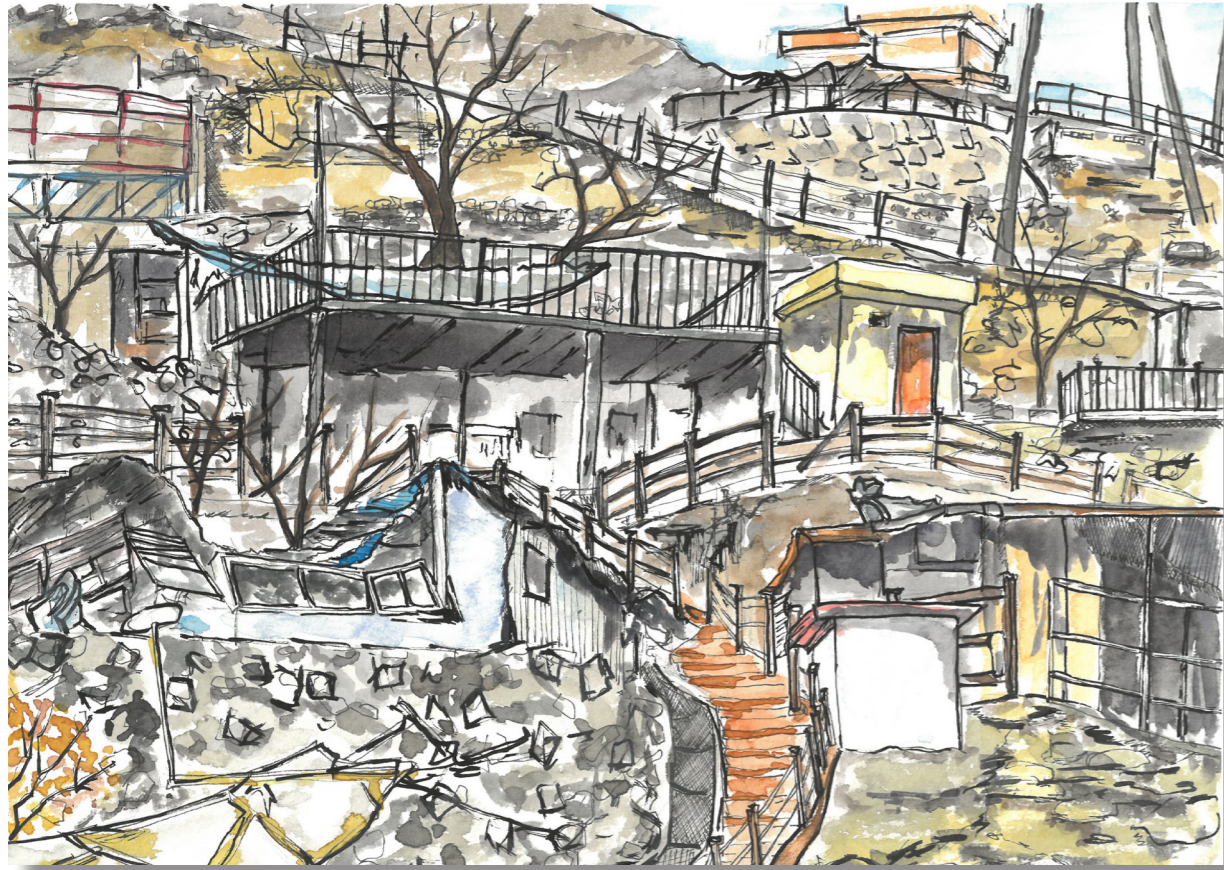
빨간 등대가 슬프도록 예쁜 노물리 바닷가.
산불이 지나간 어느 날에....

빨간 등대가 슬프도록 예쁜 노물리 바닷가
산불이 지나간 어느 날에...
(영역은 노물리)



이명자_노물항

너무 놀랄 일이었다. 설마 항만까지 불이 번질 줄은 아무도 상상 못했을 일
항구에 주차해 놓은 차가 다 타버렸다.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김명희_따개비마을

아름다움은 잿더미 속에서도 희망을 나타낸다.
언젠가 다시 꽃 피우기를.



임계화_석리항



임계화_따개비 마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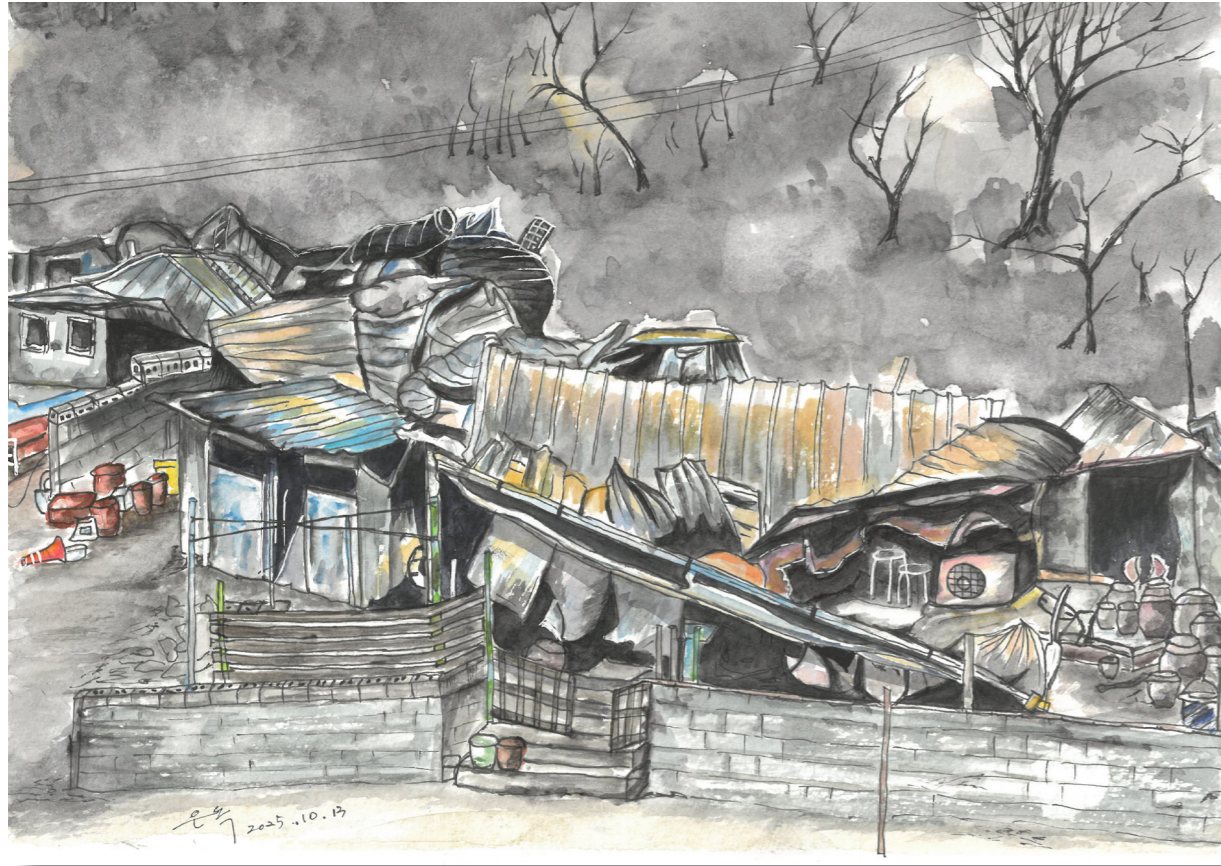
블루로드길을 걸으면서 만난 작은 항구.
 얼마나 예쁜지 실재없이 스마트폰 셔터를 눌렀습니다.
 잣더미가 되어버린 지금 속히 옛 모습을 찾기를 기도합니다.

따개비마을은 산비탈과 절벽 위에 형성된 작은 해안 마을이다. 오래된 집들이 경사면을 따라 이어져 있어, 불길이 내려오는 흐름을 그대로 받는 지형이었다.
 2025년 산불은 그 지형을 따라 마을까지 번져왔다. 집과 집 사이가 가까운 곳부터 불길이 스쳤고, 해안가 주택 일부는 높은 열기에 견디지 못해 큰 손상을 입었다. 산비탈 주택들의 외벽과 지붕이 검게 변했고, 바닷바람을 맞던 마을 색도 한순간에 바래졌다.
 그러나 마을의 형태는 남아 있다. 바다를 향해 열린 길, 방파제, 계단식 건물 구조는 모두 그대로 모습을 지키고 있다. 불에 스친 흔적만이, 2025년 여름 이곳에 불이 지나갔음을 조용히 말해준다. 따개비마을의 기록은 '완전히 사라진 마을'이 아니라, '남아 있는 자리 위로 시간이 다시 쌓이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다.



조수연_화마가 덮친 석리

영덕 화마의 큰 피해 지역 중 하나인 석리마을.
 가까이 가보진 못했지만, 저 멀리 송전탑이 무너지지 않음에 감사함을.



박은옥_나의 살던 고향은

아름다움은 잿더미 속에서도 희망을 나타낸다. 언젠가 다시 꽃 피우기를.

영덕산불 화재 현장을 두 번째로 그려보는 작업에 임하면서 처음 그릴 때 생소하고 낯설어 황당 되던 느낌과는 사뭇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면서 그 속에서 자리하며 살았던 그들의 전설(?)을 찾아가는 나를 발견하고는 놀라움과 신기함을 금치 못했다.

하물며 검게 타버린 산과 집들을 바라보며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는, “그 옛날 오색댕기 바람에 나부길 때 봄나비 나래 위에 꿈을 실어 보았는데.....” 하는 노래가 나지막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누구인가 이 소리를, 노래를 들었으면 무어라고 빈축의 말을 할 수도 있었을 터. 그래 지금은 비록, 불에 타서 그을리고, 일그러지고, 주저앉아 내려앉고, 흉한 아픔으로 겨우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그 예전에는 어느 새산랑이, 새악시가 꿈을 꾸며 살았던 아담하고 소박한 삶의 보금자리였었고, 사랑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팔팔 웃으며 마당을 뛰어다녔을 것이다. 그 아이들이 성년이 되어 자립할 때 까지 열심히, 정말 열심히 삶을 아름다움으로, 희망으로, 꿈을 꾸며, 때로는 인내함으로 성실한 책임과 의무를 사랑으로 힘차게 이루어 내었으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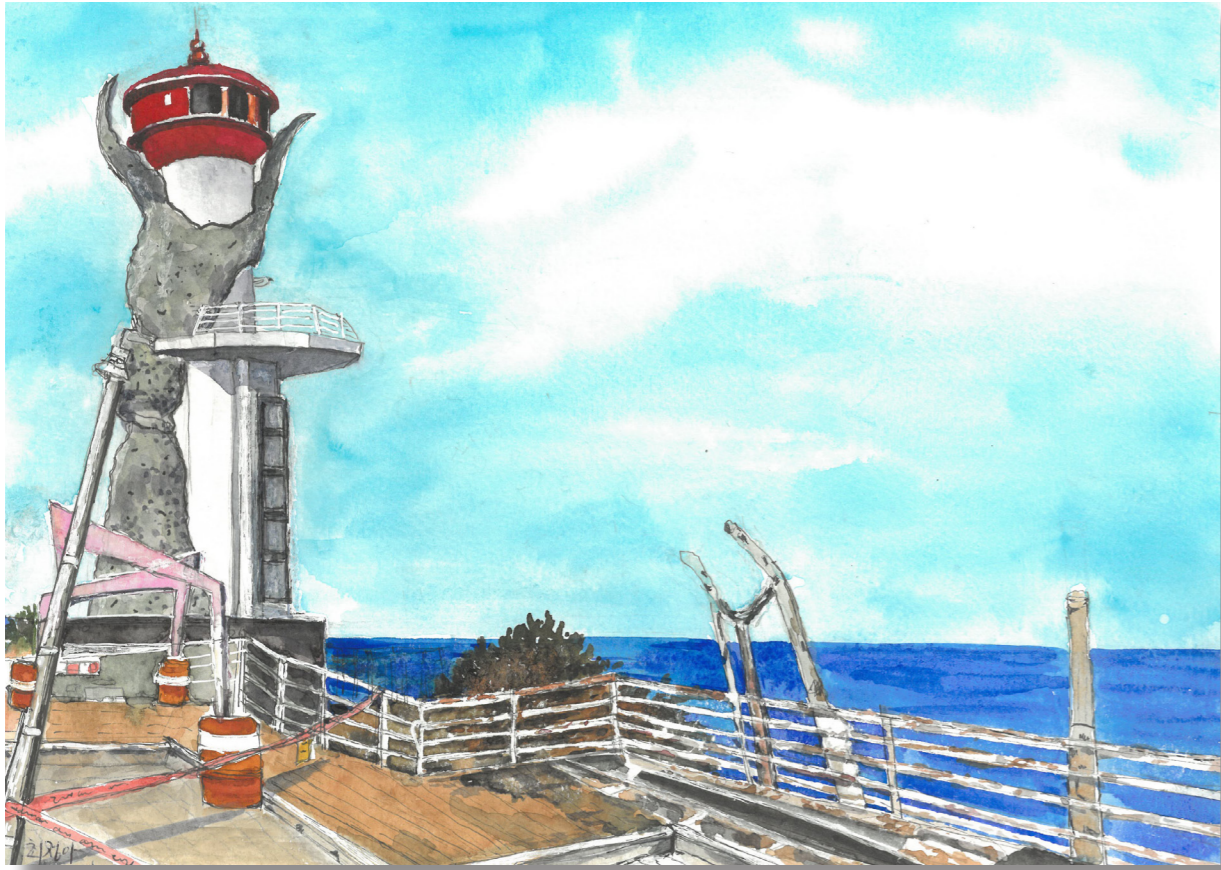
남의 일이라 여기기엔 무언지 모를 동질감으로 마음이 동함은, 아마도 우리내의 나이가, 아니, 다시 한번 자세히 검은 빛이 도는 산과 들을 바라보며 검은 침울함들이 하루 빨리 거두어지고 그곳에 초록의 밝은 희망들이 새로이 곱디 고운 아름다운 모습으로 채워지길 기대하면서 가슴 한편 쓸어내리는 먹먹함을 새로이 피어나는 기다림의 기대로 채워보기로 한다.

또 다른 빛깔로 태어날, 그 봄을 향해 정겨운 긴~~ 손짓을 아낌없이 보내면서....

해맞이공원-해가 다시 뜨는 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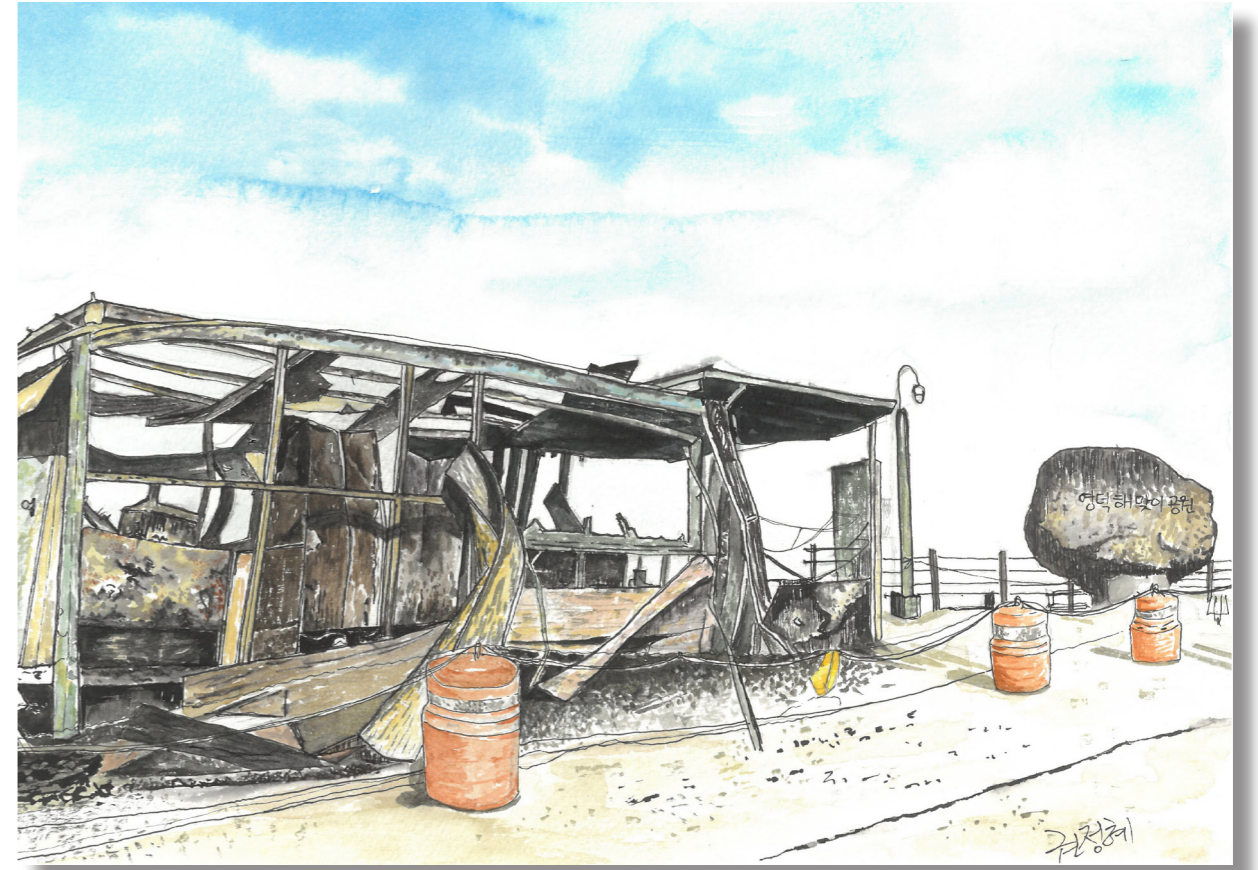
김현주_창포말등대



최정아_창포말등대

새해 첫 날 붉은 해를 맞이하며 간절한 소망을 빌던 영덕 해맞이 공원.
그 설렘 가득한 풍경은 이제 잿빛 기억 속에 갇힌 듯했다. 산불은 바닷가 해맞이 공원까지
번져, 그 아름답던 풍경의 일부를 삼켜버렸다.

1월 1일 해돋이 명소, 그곳에 드리운 그림자는 참혹했다.
잿더비가 된 공원을 바라보며, 가슴 한 켠이 먹먹해졌다. 부서진 벤치...
그 모든 것이 덧없이 사라진 시간의 흔적처럼 느껴졌다. 연기에 가려 부연 하늘은 마치 우리의
슬픔을 그대로 반영하는 듯 했다. 하지만 그 슬픔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아침
해는 날마다 희망을 안고 떠오른다는 것을.



권정혜_영덕 해맞이 공원

영덕 해맞이 공원 입구 매점 화재
여름에는 시원한 음료로 겨울에는 따듯한 차와 오뎅 국물로
찾는 이들에게 시원함과 온기를 주었던 작은 가게



허진숙_창포말 등대 옆 매점

영덕의 대표 랜드마크 창포말등대
창포말등대도 피해를 입었다는 말에 마음이 아팠다
등대 옆 매점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바다를 보던 풍경이 사라졌다

! 작가들의 느낀점

산불을 기록하는것이 앞으로의 회복을 위한 시작이라는 소명을 가지고 열심히 그렸고, 그림 한장이 영덕의 기억과 희망을 연결하는 매개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있다. 영덕군과 문화재단에 감사드립니다.

영덕 화재 현장의 참혹했던 상황을 그림으로 기록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잿더미로 변한 주택과 앙상한 산, 그리고 어촌 마을의 풍경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새 생명이 돌아 숲을 이루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둘씩 다시 세워지는 보금자리의 모습은 깊은 감동과 함께 희망을 선사했습니다. 이러한 풍경들을 다시금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기대감을 느낍니다.

1년 동안 어반드로잉과 사진 수업, 영상 만들기 수업을 들으며 일상 속에서 새로운 시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사진을 찍을 때 구도와 시선의 흐름을 고민하게 되어 예전과는 다른 눈으로 주변을 바라보게 된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 수업이 아니었다면 절대 해보지 않았을 도전들을 경험하면서 제 안의 가능성과 취향을 조금 더 넓힐 수 있었던 것이 제겐 큰 수확이었습니다. 떠밀리듯 채운 과제도 있었지만 그 덕분에 성취감도 많았던 수업이었습니다. 수업을 함께한 동아리 회원분들의 반짝이는 열정과 에너지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 수업 시간이 즐겁고 설레었습니다.

이번 1년은 새로운 시도와 배움,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가득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영덕 산불 그 후의 모습을 다시 그려보는 시간, 그림을 그린다는 건 잊기 위한 일이 아니라 기억하고 기록하며 치유하는 과정임을 다시 느꼈습니다. 아픈 순간도, 소중한 풍경도, 사람들의 마음도 종이 위에 남겨두며 영덕의 시간들을 함께 지켜가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펜으로 스케치한 켄퍼스위에 색감을 더해나가며 차분한 마음으로 나자신을 다져가는 좋은 시간이였고 함께한 회원님들과 소통할수있는 귀한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일상의 작은 장면들을 종이위에 담아내며 더 성장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어반드로잉 하면서 시간만 내면 어디서던 할 수 있어 좋은것 같고 원하는 그림은 안 나올수 있지만 즐기면서 스스로도 할 수 있다는것이 좋았습니다.

2025년 봄, 엄청난 산불이 의성에서 영덕으로 넘어왔다. 살아숨쉬던 산과 땅이 한순간에 검은 재로 무너져내렸고 그것은 너무도 가슴아픈 사건이었다. 불타버린 산과 집, 자동차 등등 그리고 가족을 잃은 사람들...

그 고통은 인간과 자연의 공존에 대한 새로운 생각과 다짐을 하게 하는 것이었다. 산불이란 재앙의 흔적은 고통과 절망만이 아닌 그 속에서 다시 피어날 생명과 희망을 위해 자연과 인간이 함께 이겨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며 산불현장 그리기 '다이그'를 하면서 우리의 그림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닿아 자연에 대한 소중함과 불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발행일 | 2025. 12. 31.

발행처 | 영덕문화관광재단

기획·진행 | 문화예술팀

연락처 | 054-730-5830

주소 | 경북 영덕군 영해면 318만세길 36 2층

홈페이지 | www.ydct.org

디자인 | 뽀든지 이선희



꿈다락 문화예술학교